

공감의 조건과 공감 자체가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오 세 윤 (Oh, Sae-yoon)*

(E-mail : syoh@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3년 9월 30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1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전남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감의 조건과 공감 자체가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문요약>

사회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성을 넘어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공감의 조건과 공감 그 자체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공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점검해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수립된 7개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는 공감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이 의미 있다는 말이다.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따돌림과 자살, 노인자살, 매일같이 불거지는 각종 사회 부조리, 부정, 불법행위 등이 공감부족이라는 단일 원인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오직 이성에만 의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관행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말하자면 잘못된 학생을 벌주고, 정학시키고, 퇴학시키고 하던 관행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이들이 공감의 기쁨을 맛보는 요령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큰 수정을 가해야 한다. 부부교육, 부모교육, 사회봉사, SNS를 통한 홍보 등 평생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전 국민에 대한 공감교육이 요청된다.

[주제어] 공감, 감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의 조건, 공감교육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2012020861)

I. 연구의 목적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많은 사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왕따, 폭행,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가 그렇고, 높은 노인 자살률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부정행위를 일삼는 고위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범법행위도 그렇다. 청소년과 노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잘못된 일탈행위는 다른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말하자면 동료나 관련되는 사람들과 공감(혹은 감정이입: empathy)이 안 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Rifkin 2009, 60-61).

이론적으로는 주위 사람들과 공감할 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은 걱정 수준의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애의 정도가 걱정 수준이 아니면 성격상 자기애자(narcissist)가 되거나 혹은 우울한 사람(melancholiacs)이 된다(권석만·한수정 2007, 50; Ruskin & Hall 1979, 590). 자기애자는 신화 속의 나르키소스¹⁾처럼 주위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인다. 또 우울한 사람은 생활에 활력이 없고 살맛이 나질 않고 자살충동에 휘말리곤 한다.

아직 동·서양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공식통계를 찾기 어렵다. 다만 1993년 미국 오리건 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증 비율이 25%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Goleman 1997, 245). 학자들은 미국 시민의 절반 정도가 공감을 할 줄 알고, 삼분의 일(1/3) 정도가 우울하다고 짐작하고 있다(Goleman 2006; Rifkin 2009, 480). 한국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자가 1개 광역시의 시청과 5개 구청의 일선 공무원과 통반장 1200명 정도를 조사하였다. 정상적인 자기애 수준이 50~56%이고, 자기애와 우울의 평균은 각각 25%이고, 자기애는 남자가 27% 여자가 23% 정도 이고, 우울은 남자가

1) 신화는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 2012. 2. 15을 참고할 것.

23%이고 여자가 27% 정도였다(Oh 2011, 57; 2010, 32). 이는 미국 학자들이 미국에 관해 짐작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일치한다.

한국은 2007년 통계에서 청소년 23.7%가 자살을 생각해볼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데(이혜선 2009, 1) 이는 청소년 우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자기애자에 속하는 청소년이 우울에 속하는 청소년을 괴롭혀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경우에는 공감에 무디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동료, 이웃, 혹은 공동체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애적 과대망상에 집착하여 저지르는 실수가 각종 부정부패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이나 사회지도층의 공감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신문사의 한 파리 특파원은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를 칼럼으로 썼다. 덴마크 사람들은 어릴 때 집과 학교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말라고 배운다.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불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는다. 이것이 구성원을 신뢰하게 만든다(전진배 2010, 39). 공감과 신뢰를 언급한다. 공감은 인생의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공감할 줄 아는 부모나 보모로부터 또는 교사로부터 배워야 한다(Goleman 1997, 192-193). 공감은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Rifkin 2009, 17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서 성장한 사람은 공감할 줄 모른다.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Hoffman 2000, 143-152). 이것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리라는 추론은 자연스럽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감은 어떤 조건하에서 일어나는가? 한국에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자기애자, 그리고 우울한 사람의 비율은 어떠한가? 공감하게 되면 서로 간에 소속감을 갖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되는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나의 연구에서 해결 가능한 질문에는 한계가 있다. 다소 포괄적인 이론모형을 활용하면 이들 질문에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I. 관련 이론 검토

연구 질문들이 안고 있는 주요 구성개념(construct)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이들 개념의 주요 내용을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 순서는 선행연구, 자기에, 공감의 의미와 공감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공감의 조건으로서 존경, 신뢰 및 소속감, 그리고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로서 친사회적 행동이 되겠다.

1.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가 독창성(creativity)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기존연구로부터 참고할 점을 발견하여 활용하데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중심 개념인 ‘공감’을 검색해보았다. 공감의 영어 단어 ‘empathy’는 ‘감정이입’으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검색하였다. 한국학술정보원(KERIS) 검색엔진(riss)으로 검색해보면 공감에서 3,107개, 감정이입에서 395개, 그리고 empathy에서 1,217개의 연구결과가 나온다. 이들 중에서 ‘공감’의 원인변수인 ‘존경’과 ‘신뢰’를 검색어로 함께 투입해서 얻은 검색결과는 두 개다. 이들 두 개의 연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중 하나는 처음부터 세 개의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기보다는 연구가 완성된 이후에 주요어(key words)를 신뢰, 존중, 그리고 공감이라고 짜 맞추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하나의 연구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박영선·김의철 2006, 85-127)에서 저자들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모, 교사, 친구 등과의 청소년기 인간관계에서 신뢰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존경이나 공감을 그 구성요인의 하나로 삼은

점이 본 연구와 다르다. 이들이 사용한 척도와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연구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박영선·김의철 2006, 85).

첫째,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이었고, 그 다음은 지도조언, 의지함, 혈연관계 및 존경 등의 순이었다.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에서는 지도조언, 존경, 희생, 믿어줌, 의지함, 사제관계 순이었다.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에서는 조언, 공감, 믿어줌, 의지함, 친구관계, 희생 순이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 이후부터 계속 낮아진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초등 시절에 가장 높고, 중학생 시절에 낮아지다가, 고등학생 시절에 다시 증가하다가 대학생 시기에 다시 낮아진다. 친구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생 이후 성장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셋째, 주변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정당과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친구를 제외한 가족, 교사, 이웃, 기업가 및 정치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넷째, 일반적인 신뢰의식은 초·중학생보다 고등·대학생이 높았다.

1) 자기에

자기에란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에자(narcissist)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자기에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에란 우월감, 거만한 행동, 자기를 향한 타인의 관심과 경외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자기개념을 말한다.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과 공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자기에자, 사이코패스(psychopath), 혹은 권모술수가(Machiavellian) 중 하나에 빠지게 된다(Goleman 2006, 117-132).

그러나 사람이 자신감이 부족하면 생활에 활기가 부족하고 우울

감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은 성질을 고려하여 자기애의 정도에 따라 자신감이 부족하여 우울한 사람, 적정 수준의 자기애를 갖는 사람,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기애자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애 척도가 개발되기도 하였다(권석만·한수정 2007, 40-50).

2. 공감의 의의와 조건

1) 공감의 의의

공감이란 “한 핏줄로 태어나 같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서 이런 감정은 당사자들을 가르는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는 시·공적 영역(temporal and spatial zone)에서 일어난다.”고 정의하기도 한다(Rifkin 2009, 160).

좀 더 구체적으로 슈타인(Stein 2000, xii-xiii)이 제시한 공감의 사례를 보자. “둘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칼에 손을 베는 것을 두 사람이 동시에 본다.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이 피땀을 형겼을 반사적으로 집어 들기도 전에, 두 사람은 동시에 몸서리치며 떴다.” 여기서 손을 베는 사람을 경험자(experiencer)라 하고, 이 경험에 반응하는 사람을 공감자(empathiser)라 한다. 평생 공감을 연구해 온 호프만(Hoffman 2000, 89)은 공감자 보다는 경험자의 상황에 더 어울리는 정의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2) 공감의 조건

공감이 일어나는 조건이나 상황을 공감의 정의와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조건이나 상황을 공감의 원인으로 간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ifkin 2009, 168-173).

① 공감은 자신의 영역을 초월(transcend)하는 경험이다.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야 공감의 감정을 맞볼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공감에는 영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적 특성이 종교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회가 산업화될수록 젊은이들은 제도화된 종교를 벗어나 개인적인 영성(spirituality)²⁾에 눈을 돌려 본인의 실존(existence)에 관심을 갖는다(Rifkin 2009, 215). 사람들은 유명배우, 가수, 연기자, 정치인 등과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E-mail이나 Facebook, 각종 블로그, 스마트폰 등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다. 소위 준사회적 관계(para social relation)가 초월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Rifkin 2009, 557-559).

②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에서 일어난다. 보통 때는 상대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특이한 감정을 함께 나눈다.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감정이다.

③ 공감은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난다. 상상력은 반성(reflection), 자성 혹은 자기성찰(self-reflection), 내성(introspection), 직관(intuition) 등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Siegel 2007, 259-320).

④ 공감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한다. 신뢰 없이는 공감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회에 중요한 사회제도를 운영할 수도 없다(Putnam 1994).

⑤ 공감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난다. 이런 성격 때문에 공감이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유롭지 않은 노예 상태에서 공감이 일어나기 어렵다. 공감이 일어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워야 한다.

⑥ 공감은 서로가 생명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과 신이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의 특성은 나

2) Kuruvilla 교수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의 토론에서 영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보다 특징으로 파악하기를 권고하였다. 같은 지역 사회(communitiy)에 함께 살고 있음, 침묵, 그리고 웃음이 영성의 특징이라고 한다. 영성에 대한 그럴듯한 정의가 나타나기까지는 이를 참고함이 좋을듯하다(Kuruvilla 2011, 27-48).

약함에 있다.

⑦ 공감하기 위해서는 거리낌 없는 참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빠져 압도되어 버리면 독립적인 자아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평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경험자와 공감자 사이에 균형 잡힌 감각이 요구된다.

⑧ 공감에는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대화, 오감 및 눈치를 통한 소통뿐 아니라 전화, 라디오, TV, SNS 등도 큰 소통 역할을 한다(Aaker & Smith 2010, 160-162). 공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통 통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사회가 분화되고, 교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공감해야 할 느낌의 종류와 부피도 커진다. 이성은 이들 느낌을 추상화하고 관리하는데 능숙해진다. 이성은 다양한 느낌을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나 사회기능으로 조절하여 질서를 부여한다.

3) 공감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 추세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호주 및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공감할 줄 알면 개인적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 및 국가도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데 동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육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 공감(혹은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Rifkin 2009, 602-604),³⁾ 비행 청소년을 인과응보적(retributive)으로 징학, 전학, 혹은 퇴학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교도소, 교육청, 지역기관 및 유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Lockhart & Zammit 2005, 68-98)하는 원상회복적⁴⁾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실시하는 학교나

3) 대학 수준에서 Johns Hopkins 의과대학과 Columbia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감 교과목을 도입했다.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Rifkin 2009, 16-17). 학교 교육과정에 원상회복적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관한 지침서(Zins·Weissberg et. al. 2004)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공감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의식을 수립하는 지름길이라는 논리와 주장(Hoffman 2000, 221-249)이 힘을 얻고 있다.

공감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여기서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이론적으로 의미가 커 보이는 존경, 신뢰, 그리고 소속감만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존경

국어사전에서 ‘존경’의 의미는 “우러러 받들”이고, 또 ‘우러르다’는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다.” 라는 뜻이다. 존경의 대상에 비해 존경을 행하는 사람의 지위에 나이의 면에서 혹은 지위의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감의 조건으로서 존경에는 나이나 지위에서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공감은 지위나 나이 혹은 신분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의 조건으로서 ‘존경’이란 나이, 지위, 혹은 사람을 나누는 어떤 구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자(experiencer)와 공감자(empathizer)가 스스럼없이 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짓이나 숨김과 같은 어색한 마음의 부담이 없어야 한다. 경험자와 공감자가 친근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아무 말이나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자와 공감자가 공감해오던 사이라도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나 숨김 혹은 불미한 일 등

4)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며 공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는 사람을 처벌해버림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래의 공감적 성격이 회복되게 공동체가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원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의 행복에 보탬이 되고 공동체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로 퇴학되어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구렁으로 빠지게 되어 개인 본인은 불행해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으로 자신을 마음 놓고 드러내기에 부담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전과 같은 정도의 공감감이 일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분별(discernment)이라 한다(Siegel 2007, 322-323).

전통사회에서 존경은 주로 노인 등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 정보화를 지향함에 따라 노인들의 축적된 지혜의 가치가 더 이상 쓸모없게 됨에 따라 이제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존경에서 수평관계를 전제로 한 존경으로 변하게 되었다(이경원 2011, 312-313). 존경 대상이 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지위의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던 것이 평등관계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Kant처럼 존경의 대상을 인간(구연상 2004, 1-21)에 한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Rifkin 2009, 90). 이는 공감과 존경의 범위가 동물과 식물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뢰

신뢰란 불확실한 상황 하의 상호작용에서 피신뢰자(trustee)의 행위로부터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신뢰자(truster)의 긍정적인 기대이다(오석홍 2013, 803-806). 피신뢰자를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뢰자가 피신뢰자의 행동 결과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으려는 자발적 의지가 신뢰이다. 신뢰자는 피신뢰자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사회문제에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서로 믿고 존경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많은 공적인 문제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회의 신뢰 수준은 그 사회와 지역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다른 것이 보통이지만(Putnam 1994), 그렇다고 한 사회의 신뢰 수준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신

되 수준에 따라 공감의 정도가 다르리라는 점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고, 공감과 신뢰가 반복해서 행해지면 신뢰 수준이 올라가리라고 생각된다.

(3) 소속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이처럼 어떤 집단, 조직, 혹은 사회관계에 속하고 싶은 욕구를 소속 욕구라 한다. 마슬로우(Maslow 1954)는 인간의 욕구가 5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고 싶은 욕구를 소속 욕구(belonging needs)라고 부른다. 이처럼 자기가 바라는 어떤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감정이 소속감이다.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소속감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동기로 작용하여 사회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것이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다루는 인간 관계론이나 사회적 인간관은 사용되는 명칭만 다를 뿐 소속욕구와 소속감에서 다루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과 대비되는 개념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다. 친사회적행동이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건설적인 행동(constructive social behavior)이다(Walsh 1980). 타인의 행복이나 복지(well-being)에 도움이 되면서도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 지역사회, 혹은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협동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것이 타인 혹은 다른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자기들끼리의 협동이나 배려행위는 친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하기,

협동적으로 행동하기, 타협하고 양보하기, 공유하기와 나누기, 공감하고 배려하기, 우정, 도덕적인 행동 등이 친사회적 행동에 속한다. 사회적으로 친사회적행동은 늘어나면서 반사회적 행동은 줄어드는 정책 지향(policy orientation)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기가 친사회적 행동의 핵심요소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동기의 존재 여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기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위가 타인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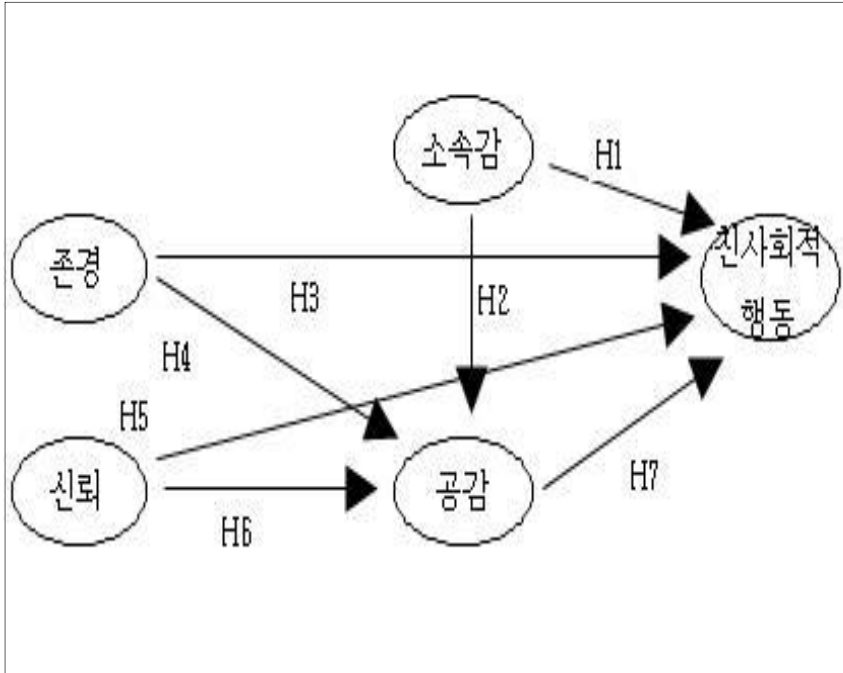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경험 자료는 기술통계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활용된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자기에 수준에 따라 정상적이고 적정 수준의 자기애를 갖는 집단, 자기애 수준이 낮은 우울한 집단, 그리고 자기애 수준이 정상 이상으로 높은 자기애 집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 이들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둘째, 가설검증을 위해 지금까지 살펴 본 6개의 구성개념(construct) 중 5개⁵⁾로 구성되는 연구모형을 만들고 이로부터 연역해 낼 수 있는 가설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1> 참조).

이론모형에는 공감의 조건인 소속감, 존경 및 신뢰와 공감 자체를 독립변수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 이론모형의 논리는 공감의 조건이 잘 갖추어질수록 그리고 사람이 공감적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 6개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척도를 소개할 것이나 그 중 자기애 척도는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론모형에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이론모형



연구모형에는 7개의 가설(hypothesis)이 나타난다. 이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 가설1: 자기가 속한 사회에의 소속감이 클수록 그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2: 자기가 속한 사회에의 소속감이 클수록 그 사람은 공감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3: 주위 사람들에 대한 존경 정도가 클수록 그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4: 주위 사람들에 대한 존경 정도가 클수록 그 사람은 그들과 공감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5: 다른 사람을 신뢰할수록 그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6: 다른 사람을 신뢰할수록 그 사람은 공감을 많이 할 것이다.
- 가설7: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12. 10월 초부터 11월 하순까지, 연구자가 거주하는 광역시의 2개 초등학교 학생, 2개 중학교 학생, 1개 대학교 학생, 그리고 시청과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가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단순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이 이상적이지만, 단독연구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우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선의 자료를 얻기 위해 표적 집단을 정해 배포조사를 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1600매의 질문지를 네 집단에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후 1260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효적인 응답률은 78.75%이다.

<표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성별	남	670	53.2	나이	10대	782	62.1
	녀	587	46.6		20대	258	20.5
	무응답	3	0.2		30대	103	8.2
가정 형편	어려운편	86	6.8		40대	82	6.5
	보통	1039	82.5		50대	29	2.3
	부유한편	126	10.0		무응답	6	0.5
	무응답	9	0.7		지위	초등 학생	319
자기 애 정도	우울	99	7.9	중학생		373	29.6
	건강	605	48.0	대학생		332	26.3
	자기애적	321	25.5	일반인		230	18.3
	강한 자기애	145	11.5	무응답		6	0.5
	무응답	90	7.1				

N=1260명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의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약간 높다. 가정 형편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유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적다. 자기에의 정도로 판단하는 그룹화에서 우울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7.9%이고, 건강한 자기에 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8.0%로 약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기에적 성향을 보이는 응답자가 25.5%, 그리고 강한 자기에를 보이는 사람이 11.5%로 전체적으로 37.0%가 자기에 집단에 속한다. 나이에서 10대가 많은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0대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비율이 18.3%로 타 그룹보다 낮기는 하나 그룹별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을 하는 등 통계 분석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척도

살펴보려는 척도는 자기에, 소속감, 존경, 신뢰, 공감, 친사회적 행동 등 6개이다. 척도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자기에척도는 라스킨과 홀(Raskin & Hall 1979)이 개발한 것을 권석만 교수와 한수정(2007, 44-50)이 한국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8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에성 성격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자기에의 특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혹은 소극적으로 응답하는가를 보이는 40개의 쌍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첫 문항의 쌍(pair)은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문항과 “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로 표현되는 소극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타당도나 신뢰도를 다른 척도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문항이 많을수록 자기에에 가깝고,

소극적으로 응답할수록 우울함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응답자의 점수 범위는 0 내지 40 점이 된다. 점수가 30 이상이면 자기애가 강하고, 23~29 이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8~22 이면 건강한 자기애를 갖는 것으로, 그리고 7점 이하이면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는 대상자를 정상적인 자기애 수준, 우울할 정도로 낮은 자기애 수준, 그리고 자기애에 속할 정도로 높은 자기애 수준으로 분류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소속감 등 5개 구성개념에 대한 탐색요인분석결과를 <표 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속감 척도는 최운선(2009, 33, 94)이 개발한 척도로 두 개의 하위요인에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일 결혼 가정 청소년의 민족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파인니(Phinney)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로버트(Robert 1999, 301-322)에 의해 청소년의 민족 정체감을 측정하기에 알맞게 번안되어 사용되었다. 이 때 12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89이었다. 최운선(2009, 33, 99)의 다문화 또래집단 연구에서는 5문항이 삭제되었다. 한국친구와의 소속감을 측정한 부분에서 신뢰도가 0.96이었고, 외국친구와의 소속감에서는 신뢰도가 0.75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문항도 삭제되지 않았으나 원래 가정했던 대로 두 개 요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았고 신뢰도는 0.89이었다.

존경 척도는 박영선·김의철(2007, 122-127)이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20개 존경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존경하는 지 묻는 형식의 리커트 5점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1=“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2=“약간 존경하지 않는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존경한다.” 5=“매우 존경한다.”로 표현하였다. 20개 대상을 그룹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으로 주성분분석을 그리고 회전 방식으로 베리맥스를 사용하였다. 5개 대상을 제외한 15개 대상을 가족 등 5개 그룹으로, 마치 하위구성개념을 탐색하듯이, 구분할 수 있었다. 그때 5

개 고유값(eigen value)값이 차지하는 분산설명 비율은 71.09%이다. 하위구성개념으로서 가족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및 할머니가 속하게 되었다. 교육자에는 선생님, 교장선생님 및 교수가 속하고, 공인에는 경찰, 군인 및 공무원이 속하고, 인기지도층에는 대통령, 재벌 및 연예인이 속하고, 끝으로 친구선배에는 친구와 선배가 속하도록 분류되었다. 사회사업가, 종교지도자(신부, 목사, 스님 등), 언론인(기자, 방송인), 국회의원 및 법관은 그룹으로 뭉쳐지지 않아서 의미 있게 분류해내지 못하였다.

신뢰 척도는 이숙정(2005, 114, 180-181)이 개발한 13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신뢰성향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1, 2, 3, 4, 11, 12 및 13번 등 7개 문항은 역코딩되었다. 신뢰도 검사에서 2번 문항이 제거되었다.

공감 척도는 윤정혜(2008, 174)가 소개하는 6문항 리커트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1="나와 전혀 다르다." 2="나와 매우 다르다." 3="나와 조금 다르다." 4="나와 조금 같다." 5="나와 매우 같다." 6="나와 아주 똑같다."로 표현하였다. 신뢰도 검토과정에서 1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친사회적행동 척도는 남중현(2004)이 개발한 3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15문항 척도를 활용하였다. 세 개의 하위 요인(구성개념)을 가정하므로 주축요인추출과 프로텍스 회전으로 타당도 분석을 해보면 미리 가정한대로 세 개의 하위 요인이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 내 행동에서 5번 문항의 적재값이 낮아 이를 삭제하게 되었다. 친사회적행동은 당초 가정했던 대로 명시적인 규정에는 없지만 조직원이 해야 하는 행동인 '역할 내 행동',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 외 행동', 그리고 팀웍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협조적 행동'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척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하위구성개념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제외된 문항수
자기애	-	80	-	-
소속감	없음	12	.885	0
존경	가족	4	.818	5
	교육자	3	.809	
	공인	3	.813	
	인기지도층	3	.698	
	친구와 선배	2	.618	
신뢰	없음	12	.768	1
공감	없음	5	.779	1
친사회적 행동	역할내행동	4	.829	1
	역할외행동	5	.809	0
	협조	5	.839	0

이어서 확인요인분석결과를 정리해본다.⁶⁾

첫째, 소속감을 나타내는 당초의 12문항 중 6문항이 제외되고, 1, 2, 3, 5, 6, 7등 6문항만 남게 되었다.

둘째, 존경에서 가족을 나타내는 하위구성개념에서 1번과 2번 문항이 제외되고 3, 4번 두 문항만 남게 되었다. 가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3번과 4번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남았다. 교육자와 공인은 탐색요인분석 결과 그대로 세 문항씩 잔존하게 되었다. 인기지도층에서 재벌과 연예인이 삭제되고 대통령만 남게 되었다. 끝으로 친구와 선배는 두 문항 다 삭제되었다.

셋째, 신뢰는 7, 8, 그리고 9번 등 세 문항만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다. 이들 문항은 주로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판매원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6)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가설검증이 끝난 다음에 쓰게 되었다. 확인요인분석 이후 모형수정과정에서 측정변수를 제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감에는 5번과 6번 두 문항만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다.

다섯째, 친사회적행동은 역할내 행동에 1, 2, 3 등 세 문항이 남았고, 역할외 행동에서는 10번 문항이 제외되고 6, 7, 8, 9번 등 네 문항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협조문항은 5문항 모두(11, 12, 13, 14, 그리고 15) 남게 되었다.

IV. 기술통계 분석 및 가설 검증

1. 기술 통계 분석

1) 자기에의 인생주기별 및 성별 차이

인생 주기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자기에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량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우울한 사람의 비율이 8.5%, 건강한 자기에 수준의 비율이, 51.7%, 비교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27.4%, 그리고 강한 자기에자 비율이 12.4%이다.

둘째, 인생주기에 따른 자기에의 수준별 변화를 보면, 한 편으로는 흥미로우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섬뜩하다. 예를 들어 우울함의 비율은 초등생으로부터 일반인으로 갈수록 꾸준히 늘어나거나, 자기에적 성향과 강한 자기에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아주 바람직한 성향을 보인다. 문제는 줄어드는 자기에 성향이 건강한 자기에로 편입되는 선에서 끝나야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자기에를 위로(말하자면 표 상에서) 밀어 올려 우울함⁷⁾의 수준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점이다. 이것이 표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60대 이후 노인층에서 우

7) 우리가 우울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을 낙담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기도 하지만, 상상력(imagination), 지식습득(new learning) 능력 및 자기변화(self-transformation) 능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상상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반응적으로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공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Kuruvilla 2013, 79).

울함이 늘어나고 한국 노인의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한 자기애에서 F값이 7.0으로 0.1%에서 유의하다는 것은 대학생집단에서 건강한 자기애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타 그룹에 비해 대학생 그룹에서 우울의 비율이 약간 높을 뿐 아니라 강한 자기애 비율이 높다는 것을 대학생 칸(cell)의 아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T검증에서는 강한 자기애의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인생주기별 및 성별 자기애 수준 변화 (단위: %)

자기애 정도	전체	인생주기별 차이					성별		
		초등 생	중학 생	대학 생	일반 인	F	남자	여자	T
우울	8.5	4.8	6.4	6.6	19.5	2.6	8.8	8.1	.21
건강	51.7	53.1	53.4	49.7	50.5	7.0** *	50.7	52.7	.81
자기애 적	27.4	26.9	29.4	28.3	23.3	1.1	26.3	28.8	.35
강한 자기애	12.4	15.3	10.8	15.4	6.7	.6	14.2	10.4	2.47*
합계(N)	1260	319	373	332	230	-	670	587	-

* <.05, **<.01, ***<.001

2) 인생 주기별 구성개념의 수준 차이

자료수집에 응한 대상자들이 표현한 5개 구성개념에 대한 반응 수준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구성개념과 하위구성개념의 괄호 안에 표시된 영문 소문자는 AMOS프로그램에 투입된 명칭들이다. 분석 결과의 특징은 모든 구

성개념 및 하위구성개념에서 인생 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소속감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초등학생과 일반인의 소속감이 비교적 높는데 반해 그 중간에 끼여 있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소속감이 낮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낀다. 중·고의 입시지옥을 거쳐 대학생활을 하면서 낮은 소속감에서 해마다가 성인이 되면 나름대로 생애 활기를 얻으면서 소속감을 높게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존경은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전 인생 주기에서 가족에 대한 존경이 제일 높고, 응답자들이 실제로 존경하는 대상은 가족뿐이다. 그 다음 큰 특징으로 공인(경찰, 군인, 공무원)과 인기지도층(대통령, 재벌, 연예인)에 대한 공무원의 존경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인기지도층에 대한 존경 수준은 초등학생이 중립적인 수준이고 중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등의 존경 수준이 낮다. 전반적으로 인기지도층에 대해서는 존경 수준이 낮다. 가족을 제외한 교육자, 공인 및 친구 등에 대한 존경 수준은 중립적이거나 낮다. 중학생의 존경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존경 수준에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일반인의 존경 수준이 제일 낮다는 것도 특이한데, 자신들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제일 낮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신뢰 수준이 낮은 것이 특이하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 경험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넷째, 중학생을 제외한 여타 모든 그룹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친사회적행동은 일반인으로 표현된 공무원집단에서 제일 높다.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되는 모든 구성개념에서 중학생

의 수준이 낮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상황의 소산일 수도 있다. 비록 미미하나 일반인이 되면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인지도 모른다.

<표 4> 인생주기별 구성개념의 변화추이

구성개념	하위 구성개념	인생주기				F
		초등생	중학생	대학생	일반	
소속감 (bl)	없음	3.57	3.39	3.43	3.52	4.60**
존경 (res)	가족(rf)	4.37	4.06	4.11	4.27	10.77***
	교육(re)	3.89	3.24	3.40	3.46	29.32***
	공인(rp)	3.91	3.38	3.29	2.99	45.38***
	인기지도층 (rl)	3.07	2.82	2.70	2.37	21.16***
	친구선배 (rc)	3.08	2.99	3.21	3.51	15.96***
신뢰(tt)	없음	2.62	2.52	2.44	2.38	10.49***
공감 (em)	없음	4.01	3.94	4.10	4.31	8.77***
친사회적 행동 (psb)	역할내(pi)	3.50	3.44	3.58	3.86	17.82***
	역할외(po)	3.00	3.01	3.19	3.23	8.21***
	협동(pc)	3.02	3.05	3.35	3.42	23.45***

note: 평균; *** <.001, **<.01; 공감=6점 척도, 그 이외의 척도는 5점 척도임

2. 가설검증

개별 가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검증하기 이전에,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검토해보고 (<표 5> 참조), 이어서 이론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측정수준을 잘 예측해내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표 6> 참조).

1) 모형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이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합한지 검토해볼 수 있는 지표 (혹은 지수)로 많은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었다(송지준 2009, 323-326). <표 5>에는 이들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8개 지수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네 개의 열(column)에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지수의 종류, 지수별 통계분석 결과, 개별지수가 통계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판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어느 연구에서도 모든 지수의 분석결과가 적합도 기준에 합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여기에서는 8개의 지수 중 6개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로서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본 연구가 채택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표 5> 모형 적합도 검토

지수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	적합판단
CMIN/p값	1117.63/0.000	p>0.05	부적합
CMIN/DF	2.517	2 이하	부적합
NFI	0.937	0.9 이상	적합
RFI	0.926	0.9 이상	적합
IFI	0.961	0.9 이상	적합
TLI	0.954	0.9 이상	적합
CFI	0.961	0.9 이상	적합
RMSEA	0.035	0.05 이하	적합

DF=444

2) 이론과 측정의 연결: 연역과 귀납

본 연구가 사용하는 소속감, 존경, 신뢰, 공감,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개념(concept, construct, 혹은 latent variable)들이 질문지를 이용해 측정하는 문항들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어지고 (혹은 잘 연결되고)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표 6>이다. 여기에는 각 구성개념이 몇 개의 하위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하위구성개념은 몇 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는지, 그리고 개별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위구성개념과 연결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표를 통해 좌에서 우로 연결되는 연역논리(deduction)와 우에서 좌로 연결되는 귀납논리(induction)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존경은 “가족, 교육자, 공인, 인기지도”라는 네 개의 하위구성개념(sub-construct)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족이라는 하위구성개념은 ‘r3’와 ‘r4’라는 두 개의 문항⁸⁾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하위구성개념이 r4 문항을 유의수준 0.1%에서 예측하고 있고, 가족이라는 하위구성개념이 r4를 예측할 때의 R² 값은 0.79로 말하자면 가족이라는 하위구성개념에 의한 r4(할아버지, 여기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 정도)의 설명비율은 79%가 되는 것이다. 그때의 표준회귀계수가 0.886이다. r3의 예측된 회귀계수가 처음에 1.0으로 고정된 이유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여줌으로써 알고 있는 정보의 개수와 동일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하 같은 요령으로 <표 6>을 읽어 나가면 될 것이다.

소속감, 신뢰, 그리고 공감에는 하위구성개념이 없다. 이 표에서 구성개념이 하위구성개념을 예측하는 과정 그리고 하위구성개념이 측정문항을 예측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수준은 모두 0.1%이다. 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쌍방향 흐름이 즉 연역과 귀납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8) <표 2>에서 가족이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확인요인분석과 모델 적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두 문항이 제거되고 가족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문항만 남게 되었다.

<표 6> 구성개념에 의한 하위구성개념 및 측정문항 예측

구성 개념	하위구성개념예측			측정문항 예측				
	하위 개념	예측	CR	측정 문항	예측	CR	표준화	R ²
소속감 (bl)	하위 구성 개념 없음			b1	1.0	-	.729	.53
				b2	1.01	25.02***	.749	.56
				b3	1.09	27.35***	.812	.66
				b5	.95	24.78***	.734	.54
				b6	1.01	26.11***	.774	.60
				b7	1.01	25.36***	.756	.57
존경 (res)	가족 (rf)	1.0	-	r3	1.0	-	.875	.77
				r4	.98	21.29***	.886	.79
	교육자 (re)	1.58	9.93***	r5	1.0	-	.768	.58
				r6	1.21	26.37***	.834	.69
				r7	.98	23.53***	.710	.50
	공인 (rp)	1.08	11.43**	r13	1.0	-	.852	.73
				r14	.99	28.78***	.840	.70
				r15	.72	22.62***	.637	.40
	인기지도(rl)	1.26	11.31**	r18	1.0	-	.671	.44
	신뢰 (tt)	하위구성개념 없음			t7	1.14	21.01***	.779
t8					1.03	20.93***	.749	.56
t9					1.0	-	.707	.50
공감	하위구성개념 없음			e5	.89	11.90	.724	.52

(em)						***		
				e6	1.0	-	.808	.65
친사회 적행동 (psb)	역할내 (pi)	.71	13.84* **	p1	1.0	-	.745	.56
				p2	1.01	25.56 ***	.793	.63
				p3	.98	25.07 ***	.773	.60
				p4	.80	21.33	.650	.42
				p6	1.0	-	.668	.45
	역할외 (po)	.90	15.28* **	p7	1.07	21.53 ***	.737	.54
				p8	1.06	21.59 ***	.740	.55
				p9	1.08	21.02 ***	.714	.51
				p11	.93	21.21 ***	.669	.45
	협동 (pc)	1.0	-	p12	1.00	22.54 ***	.716	.51
				p13	1.10	23.56 ***	.754	.57
				p14	1.08	22.71 ***	.722	.52
				p15	1.0	-	.697	.49

***.001

3)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제시된 7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표 7>에 요약하였다. 7개의 가설 중 가설4를 제외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유의수준=.05). 존경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이다.

가설검증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가설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 내용과 가설검증 논리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가설 검증

가설번호	독립변수	방향	종속변수	예측값	SE	CR	p	채택여부
1	소속감	→	친사회적 행동	.226	.025	9.04	.000	채택
2	//	→	공감	.115	.046	2.51	.012	채택
3	존경	→	친사회적 행동	.054	.037	1.46	.045	채택
4	//	→	공감	.056	.074	0.754	.451	기각
5	신뢰	→	친사회적 행동	.211	.027	2.75	.000	채택
6	//	→	공감	.139	.051	2.74	.006	채택
7	공감	→	친사회적 행동	.229	.024	9.54	.000	채택

V. 결론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앞에서 우리는 공감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관련 이론 검토, 기술통계 분석, 그리고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요약하고, 관련되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자.

첫째, 자기에와 우울의 정도가 심각하다. 전 인생주기에서 자기에와 우울이 심각하다. 초등학생, 중학생 및 대학생 그룹에서 강한 자기에 그룹이 우울한 그룹을 괴롭혀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시절에 4.8%이던 우울 그룹이 중학에서 6.4%, 대학에서 6.6%, 30내지 40대에 20%,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25%정도로 증가하다가 그 후에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자살과 노인의 자살 양상이 다르다.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에 그룹에 못 이겨서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만, 노인 그룹에서는 자기 스스로 우울을 못 이겨서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강한 자기에 그룹이 문제인데, 이 그룹이 초등 시절에 15.3%, 중학 시절에 10.8%, 대학 시절에 15.3%, 그리고 성인이 되어 6.7%로 낮아진다. 어린 시절에 강한 자기에 성향을 보이던 그룹이 인생 주기를 거치면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려가면 자기에 성향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속되는 그룹에 속해있으면서 이들이 각종 직업 집단에서 자기에를 과시하는 그룹으로 오래까지 세를 유지한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울 그룹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게 됨은 물론이다. 이들이 각종 사회 부조리를 이끌어가는 세력일 가능성도 크다.

외국의 자살률 추이를 보면 10-30세에서 정점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하강하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높아진다. 2010년 OECD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40명인데 한국에서는 100명이 넘는다. 너무나 높다.

한국에서는 왜 60대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가? 나이 변화에 따른 욕구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1960년대 이래 경제를 제일로 여기는 풍토에서 생활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다른 욕구도 인간생활에서 생리욕구나 안전욕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사회적 욕구, 존경욕구 및 자기실현 욕구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는 반성(reflection)도 해보지 않은 노인이 꽤 많을 것 같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표 4>에서 보듯이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소속감이나 자기실현욕구에 속할 수도 있는 친사회적 행동은 의견이 없는(예를 들면 질문지에서 “3=그저 그렇다.” 혹은 “보통이다.”)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신뢰 수준이 매우 낮다. 공감에서 말하는 배려와 치료가

시급한 증후군이다. 공감할 줄 모르는 자기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공감 부족이 청소년 자살, 노인자살, 각종 사회 부조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시대의 피해자들로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Siegel 2007, 3-28).

둘째, 바로 위의 지적과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껏해야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 <표 4>의 존경 부분은 한국인이 사회를 대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직장인은⁹⁾ 자기 직장 동료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회를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낮고 그 중에서도 중학생은 공감하지 않는 수준이다. 보육원,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공감하는 요령과 공감할 때 기쁨이 어떤 마음의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 깨우칠 수 있는 요령을 경험하고 이를 강화시킬 기회를 충분히 갖게 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들에게는 공감을 익히고 숙달시킬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가 제시한 7개의 가설 중 6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면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 연구에서 가설 수립을 위해 전개했던 논의 내용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이다.

가설 수립을 위해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 잇단 자살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 높은 노인 자살률,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 등의 원인은 공감 부족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자와 공감자 사이에 존경과 신뢰 등 일정한 조건이 형성·유지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잇달

9) <표 4>에서 일반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아 도입하고 있는 원상회복적 사법 등 공감에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공감 학습을 보충하거나 심화시킬 여러 조치들이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감은 개인이나 지역을 넘어 전체 생물권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3. 시사점

1) 이론 및 학문적 시사

공감을 단일 교과목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 의학, 심리학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공감을 실제 사회에 적용하려면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하다. 학생 왕따 문제와 폭력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합리주의적 대안들만 무성하다. 소위 이성(reason or rationality)의 입장에서 고려된 대안들뿐이다. 이들 문제는 감성과 공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당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사변적으로 구별하는 이성과 감성의 구분은 이제 신경과학(neuroscience)과 심리학 및 의학 등의 도움을 받아 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인문학도 이제 근거 있는 인문학이 되어야 하고 사회과학은 더욱 그렇다.

1980년 이후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역할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구분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Goleman 2006, 171-172). 이성과 감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한다.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윤리, 도덕 등에 대한 그간의 합리적·이성적 전체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혹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와 기의 구별을 전제로 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적 입장에서부터 기에 기반을 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적 접근으로 이론과 각종 정책의 기초를 바꾸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할 때가 됐다. 인간이성의 과신에 찬 입장이 바뀔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2) 사회적 및 정책적 시사

공감할 줄 모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행할 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도 불행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애적인 사람을 전도유망한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한다(김주현 2007, 6-8).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왕따 및 폭력과 사회지도층의 불법 및 편법행위는 당연한 일 아닌가? 이성적으로 너무 잘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듯 아주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본 연구 자료<표 4>로 보듯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포함해서 50% 정도가 공감할 줄 모른다. 이는 16세기 이후 줄곧 전체보다는 개인, 화합보다는 경쟁, 감성보다는 이성, 현상학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보다는 분석과 통합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고 시장(market) 논리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왕따 · 폭력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집단적 · 민족적 폭력 형태인 holocaust, genocide 및 death camp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학살과 위안부 문제가 한 · 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민족이 학살에 가담하거나 당한 기록을 갖고 있다. 불편한 민족 감정이 있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이들 문제에 대한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공감(감성)교육과 원상회복적 사범은 이를 위한 시도이다.

3) 교육 및 인력양성에의 시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과정에 공감교육이 포함되게 한다. 공감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인력 채용에 공감반응 검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유아원, 유치원, 초중등 교원 수련과정에 공감을 터득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개설한다.

부록: 질문지

1. 공감척도: 리커트 6점 척도; 1='나와 전혀 다르다.' 2='나와 매우 다르다.' 3='나와 조금 다르다.' 4='나와 조금 같다.' 5='나와 매우 같다.' 6='나와 아주 똑같다.' e1.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e2.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e3.나는 나의 친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의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곤 한다. e4.나는 모든 사항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면이 있으며, 그 두 가지 면을 모두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e5.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잠깐 그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보려고 노력한다. e6.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2. 존경척도: 5점 척도. 1='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2='약간 존경하지 않는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존경한다.' 5='매우 존경한다.' r1. 아버지 r2.어머니 r3.할아버지 r4.할머니 r5.선생님 r6.교장선생님 r7.교수 r8.친구 r9.선배 r10.사회사업가 r11.종교지도자: 신부, 목사, 스님 등 r12.언론인: 기자, 방송인 r13.경찰 r14.군인 r15.공무원 r16.국회의원 r17.법관 r18.대통령 r19.재벌 r20.연예인

3. 신뢰척도: 리커트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t1.우리사회에서 위선(거짓)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t2.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t3.우리가 보고 듣는 뉴스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t4.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 알게 되지만, 그 기사들이 객

관적이라고 믿기 어렵다. t5.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t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은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다. t7. 대부분의 정치인은 유세할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제로 지킨다. t8.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대개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사회에 돌려준다. t9.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안내한다. t10. 대부분의 수리공은 내가 그 분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t11. 우리사회에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t12.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t13. 국내 정치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4. 소속감척도: 선지는 신뢰와 동일; b1.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b2.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행복하다. b3. 나는 한국인으로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b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b5. 나는 한국인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b6. 나는 한국인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 b7. 나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만족스럽다. b8. 나는 한국의 역사, 전통, 관습 등을 더 잘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b9. 나는 한국 사람이 모인 조직이나 사회집단에 적극 참여한다. b10. 나는 한국 사람인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b11. 나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b12. 나는 한국 음식, 음악, 관습 등과 같은 한국문화를 즐기는 편이다.

5. 친사회적행동척도: 선지는 신뢰와 동일; p1. 나는 규칙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며 생활한다. p2. 나는 친사회적행동을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 p3. 나는 규칙에 표시된 만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p4.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한 행동을 적절히 행한다. p5. 나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만 돕는다. p6. 나는 규칙에 없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나서서 돕는다. p7. 나는 상대방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돕는다. p8.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규정된 역할 이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한다. p9. 나는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규정 이상으로 기꺼이 맡은 일을 수행한다. p10. 나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 자주 규정을 벗어나곤 한다. p11. 나는 일이 늦거나 업무가 많은 사람을 돕는다. p12. 나는 주위 사람을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p13. 나는 전학 온 학생이나 신입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꺼이 도와준다. p14. 나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낸다. p15. 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대방을 기꺼이 돕는다.

< 참고문헌 >

- 구연상, 2004, “Kant의 존경개념에 대한 기본학적 해명”, 『대동철학』, 25, pp. 1-22.
- 권석만·한수정, 2007,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김주현, 2007, “추천사”, 대니얼 골만 저, 장석훈 역. 『SQ 사회지능』, pp. 6-8, 서울: 웅진하우스.
- 남중현, 2004, “호텔 서비스 제공자의 지각된 친사회적 행동이 시장성과와 품질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 연구』, 15(1), pp. 39-54.
- 박영선·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 형성과 집단별 차이비교: 인간관계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pp. 85-157.
-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오석홍, 2013, 『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윤정혜, 2008, 『자기애 측정도구: ISP 타당화연구(Heins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이숙정, 2005, 『교사신뢰척도 개발 및 교사신뢰와 학교효과 변인의 관계모형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 이혜선, 2009, 『커뮤니티 전체 시스템 접근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군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진배, 2010, “덴마크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중앙일보』 (1, 12): 39.
- 최운선, 2009,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민족소속감 탐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논문.

- Aaker, J. & A. Smith, 2010, *The Dragonfly Effect: Quick, Effective, and Powerful Ways to Use Social Media to Drive Social Change*. New York: Jossey-Bass.
- Goleman, D, 1997,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한창호 역, 『감성지능』, 서울: 웅진하우스)
- _____, 2006, *Social Intelligence: The New 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Bantam Books. (장석훈 역, 『사회지능』, 서울: 웅진하우스).
- Hoffman, Martin, I.,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uvilla P., 2013, “Practicing Global Citizenship Today: A Gandhian Perspective”,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Global Citizenship Forum*.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월 18일.)
- _____, 2011, “Authenticity, Citizenship and Belongingness in the Age of Scientific Education: A Contemporary Philosophical Refle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2011 Forum of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in the Globalized World : Low Carbon, Green-Growth Age.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5월 11일).
- Lockhart, A, & L. Zammit, 2005, *Restorative Justice: Transforming Society*. Toronto: Inclusion Press.
- Oh, Sae-Yoon, 2011, Comparing the Impact of Social Emotions on Self-efficacy Among the Melancholic, Normal, and Narcissistic Groups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Service Encounters, Proceedings of the 18th ICAM and 4th ICSI,

pp. 57.

- _____, 2010, The Impact of Social Intelligence and Narcissism on Policy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Level Bureaucrats and Citizen's Representatives, Proceedings of the 17th ICAM and 3rd ICSI, p. 32.
- Putnam, Robert D,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skin, R. & Calvin S. Hall,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p. 590.
- Rifkin, J.,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New York: Jeremy P. Tarcher/Penguin. (이경남, 『공감의 시대』, 서울: 민음사)
- Roberts, R. E., Phinney, J. S., Masse, L. C., Chen, Y. R., Robert, C. R., & A. Romero, 1999, "The structure of ethnic identity of young adolescents from ethno-cultural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pp. 301-322.
- Siegel, D. J., 2007, *The Mindful Brain: Reflection and Attunement in the Cultivation of Well-Being*. New York: Norton & Company.
- Stein, Edith, 2000, *Philosophy of Psychology and the Humanities*. (Translated by Mary Catharine Baseheart and Marianne Sawicki). Washington, D. C.: ICS Publication.
- Walsh, H. D, 1980, *Introducing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ld*. New York: Micmillan.
- Zins, J. E., Weissberg, R. P., Wang, M. C, & Herbert J. Walberg,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The Effect of Conditions of Empathy and Empathy itself on Pro-Social Behavior

Oh, Sae-yoon
(Honam University)

Abstract

Every day, we hear gloomy news such as juvenile suicide and bullying, senile suicide, and wrongdoing by public officials. On this juncture, empathy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 suppose that all of the gloomy news of juvenile, senile, and official's unuseful behaviors have the same cause, deficit of empathy.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effect of conditions of empathy and empathy itself on pro-social behavior, comes from this supposition.

To check whether my idea is right or not, I mad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independent variables, belongings, reverence, trust, and empathy are accepted, and as dependent variable pro-social behavior is accepted. Among the seven, six hypotheses have been tes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This suggests that my prior theoretical discussions, from which the seven hypotheses were induced, are

meaningful and right. Some implications for theory, policy, and education have been suggested. So many countermeasures for social problems, which are based on reason but discard empathy and emotions, cure only a few problems and wrong-doings. Only half of the subjects empathize. Empathy education for most people is necessary. The more people empathize, the happier they will be.

Keywords : empathy, emotions, pro-social behavior,
conditions of empathy